

예산도 경제논리... 전남 신규사업 '비상'

2016 예산안 편성지침 지역균형발전보다 효율성 위주로

인구 적은 지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어려움 클 듯

내년 정부예산 편성이 지역균형발전보다는 합리성이나 효율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칫 인구가 적은 호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전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측면이 강화되면 신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재원배분 합리성 제고 ▲재정 지출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 신뢰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0대 과제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에 따르면 부처별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하는 등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예산 편성시 600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또 기반시설(SOC)사업에 있어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신규 조세 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예산배분 기준을 개편하면서 동시에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침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수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거나 인구가 적은 시·도는 그만큼 예산이 적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190만5780명이었다가 지난달 190

만2274명으로, 19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는 전남도로써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 예산 배분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2016년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올 초부터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지난 2일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1명,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 비례대표 2명 등 지역국회의원 20명을 상대로 2016년 국경의 사업을 설명한 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가 국토교통부 등 16개 정부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222건에 건의액은 2조 63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이 145건(5399억원)으로, 이번 지침이 이들 사업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빛가람 사물인

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2016년 건의액 137억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200억원) ▲휴수로 구조물화 사업(400억원) ▲철강 부산물 활용 친환경 생태산업 클러스터 구축(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빛가람에너지밸리 센터 건립(147억원) ▲도초~하의 간 연도교 건설(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영산강 퇴적토 준설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으로,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6월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제42회 光日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42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

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포상 추천 대상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중상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접수 : 2015년 4월 17일(금)까지
■발표 : 2015년 6월 1일(월) 광주일보
■시상 :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일시 : 2015년 6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존과 (062-975-6644)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전남 남자들이 흡연을 더 늘었다

2014 건강조사, 7년 전보다 상승...광주, 고위험 흡주율은 낮아

광주 시민들은 술을 마시되 폭음은 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인 흡연율(성인 남자) 감소 추세속에서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은 전국 16개 시·도민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7년 전에 비해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남자 흡연은 감소하고 있으나 흡주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고 비판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가 7일 공개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작년 8~10월 253개 시·군·구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 흡연율은 45.3%로 2008년 49.2%에 비해 소폭 줄었다.

성인 남자의 2014년 '현재흡연율'은 지난 2008년 대비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나 광주·전남만은 약간 증가했다.

시·군·구별 현재흡연율 통계를 보면 완도군이 55.8%로 경기 포천시(59.9%)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이와 함께 '고위험 흡주율'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8년 18.4%에서 작년 18.7%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광주의 고위험 흡주율은 16.0%로 대구(15.9%)와 함께 가장 낮아 비교적 바람직한 흡주습관을 들인 것을 분석된다. 완도의 고위험 흡주율은 29.0%로 경기 연천군(32.8%)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고위험 흡주율이 1회 평균 흡주량이 7잔(남성) 혹은 5잔(여성)을 넘고, 주 2회 이상 흡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건강 실천율(1회 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13개 시·도 등 대다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례군은 17.6%로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미군 전투기 무안공항 '비상착륙' 7일 오후 3시35분경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기체 결함으로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미 공군 소속 전투기 2대는 1시간 전 군산공항을 이륙, 훈련 비행에 나선 후 1대에서 갑작스럽게 엔진 고장이 발생해 2대가 잇따라 비상착륙했다. 무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건물 가치 3105억원

국가 보유 건물 중 3번째로 비싸
서해안고속도로는 6조685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 가치가 장부가로만 3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건물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 이어 3번째로 비싼 것이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

유재산은 모두 937조3000억원으로 1년만에 25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재산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922억원이었다. 2위는 보건복지부·교육

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들어선 '정부세종청사 2단계'로 장부가액이 4445억원에 달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부가액은 310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문화전당은 단

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2457억원)을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정부 대전청사는 2409억원으로 5위였다.

토지를 제외한 고속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해안선(서울~목포)이 6조6853억원, 남해고속도로(부산~순천) 6조4046억원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광주' 다시 뜨거워진다 ▶7면

KIA 마운드의 새 희망
선발 문경찬·믿을맨 박준표 ▶20면

어? 성경이 없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새롭게 태어납니다

케이블TV VOD

최신영화, 드라마, 연예오락, 키즈, 애니메이션, 그리고 세계 최고
세상의 모든 콘텐츠 이젠 케이블TV로 즐기세요

CM 비엔컴 케이블방송 CMB CJ 엘로버전 t-broad HYUNDAI 현대HCN 금강방송 NIB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CS 충북방송 MBN 아름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KCTV제주방송 하나방송 KCTV 광주방송 CS 푸른방송